

## [8차시] 말과 여가



### 1. ‘노름’과 ‘놀음’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천사 만사 다만사/조리 김치 장독간/총채 비파리 딱/한다리 두다리 세다리/인사 만사 주머니끈/칠팔월에 무사리/동지선달 대사리…”

어린 시절 형제 혹은 동무들과 서로 다리를 가지런히 펴고 리듬 장단에 맞추다 규칙에 어긋나면 벌칙을 받으며 울고 웃었던 다리뽑기 놀이의 동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의 한 자락입니다. 여러 가지 규칙과 차례, 정직, 양보 등 사회성, 도덕성, 협동심을 익힐 수 있었던 ‘놀이문화’를 나타내는 말로 ‘놀음’이 있습니다. ‘노름’과는 구분해 써야 하는 말이죠.

‘놀음’과 ‘노름’은 행동하는 양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놀음’은 ‘놀음놀이’의 준말로 꼭두각시놀음, 북청사자놀음, 광대놀음, 들놀음(野遊). 인형극 놀음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익살스러우면서도 즐겁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말할 때 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노름’은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등을 써서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내기를 하는, 요행수를 바라는 놀이입니다.

“왕서방이 노름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렸다” “전문 노름꾼들과 노름하다 경찰에 붙들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노름은 본전에 망한다” “노름 뒤는 대도 먹는 뒤는 안 댄다” 등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2. ‘갈갈이’와 ‘갈가리’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마음이 아프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기도 벅찬데 ‘갈갈이’ 찢어져 대립해서야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가?”

경제가 어렵고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요즘, 위와 같은 예문을 신문이나 인터넷 댓글 등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진 모양’을 뜻하는 말로 ‘갈기갈기’ ‘갈래갈래’ ‘갈갈이’ 등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갈기갈기’ ‘갈래갈래’는 표준어지만 ‘갈갈이’는 ‘갈가리’를 잘못 쓴 것입니다. ‘갈갈이’를 ‘갈기갈기’의 준말 형태로 생각해 그렇게들 쓰는 것 같은데, 뜻은 같지만 다른 데서 온 말이지요.

## [8차시] 말과 여가



‘갈가리’는 ‘가리가리’의 준말입니다. 앞의 ‘가리’가 줄어 ‘갈’이 된 거죠. 여기서 ‘가리’는 갈라지거나 찢어졌다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갈기’도 ‘산산이 찢어지거나 갈라진 그 하나하나의 가닥’을 뜻하는 북한어인데, 우리말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로는 ‘갈래’가 있지요.

반면 ‘갈갈이’는 ‘가을갈이’의 준말로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해 가을에 논밭을 미리 갈아 두는 일’을 뜻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갈’은 ‘가을’의 준말로 표준어입니다.

### 3. ‘복숭아’와 ‘봉숭아’

‘봉숭아’와 ‘복숭아’는 철자는 비슷하지만 꽃과 과일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미있는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익히 아는 것처럼 신맛과 단맛이 절묘한 여름 과일입니다. 한자로는 도(桃)로 표현합니다.

색깔(연분홍, 桃色)과 열매의 생김새 덕에 ‘남녀의 연정’과 관계된 말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도색영화, 도색잡지 등이 있는가 하면, 혼기에 이른 수줍은 처녀 시절을 일컫는 ‘도요(桃夭)’라는 말도 있습니다.

봉숭아는 다른 꽃에 비해 화려하고 탐스럽지는 않지만 볼수록 마음이 끌리고, 밤이면 어머니를 졸라 꽃잎을 으깨 이파리로 손톱을 싸매고 다음 날 들여질 꽃물을 생각하며 잠들곤 했던 추억이 있는 꽃이지요. 흔하고 친숙하다 보니 꽃 이름도 다양하게 불립니다. 봉성화, 봉선화, 봉숭화, 봉숭아, 지갑화, 봉송아, 금봉화 등….

1988년 새 표준어 규정엔 ‘봉숭아’와 함께 ‘봉선화(鳳仙花)’가 복수 표준어로 올라 있습니다. 꽃 모양이 봉황을 닮았고, ‘봉선’이란 가공인물이 등장하는 설화도 있지요.

## [8차시] 말과 여가



### ※ 심화학습

‘봉선화’와 ‘복숭아’의 꽃말을 비교해 보고, ‘복숭아뼈’의 바른 쓰임을 알아봅시다.

‘봉선화’와 ‘복숭아’는 꽃말을 비교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봉선화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청초한 자태를 보이며 함초롬히 피어 있는 봉선화에는 “울 밑에선 봉선화야~”로 시작되는 노래에서 보듯 일제 강점기의 저항정신이 담겨 있기도 하지요.

복숭아꽃의 꽃말은 ‘사랑의 노래, 희망’ 등입니다.

참고로 복숭아와 관련해 알아둘 게 있습니다. 사람의 발목 부근에 둥글게 나온 뼈를 그 생김새 때문에 흔히 ‘복숭아뼈’로 표현하는데 ‘복사뼈’가 표준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 4. ‘햇빛’과 ‘햇볕’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영롱한 서정을 노래한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의 일부입니다. 시인이 해를 ‘햇발’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말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또 다른 말로 ‘햇볕’과 ‘햇빛’이 있습니다.

‘햇볕’과 ‘햇빛’은 표현의 대상이 같지만 쓰기에 따라 감칠맛이 다른 낱말입니다.

‘햇빛’은 해에서 나오는 빛(光)을 일컫습니다. 시신경을 자극해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전자기파로 ‘밝음’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요. 따라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 ‘전등빛이 햇빛처럼 밝다’ ‘풀잎마다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에 반사돼 반짝인다’ ‘여름의 강렬한 햇빛은 녹음을 질게 한다’처럼 해의 빛과 관계되는 여러 현상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와 달리 ‘햇볕’은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기운’을 말합니다. ‘열(熱)’과 관계되기 때문에 살갓을 통해 자극의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쓰이는 예도 ‘햇볕에 피부가 많이 그을렸다’ ‘양지 바른 곳에 앉아 햇볕을 쬌으며 추위를 녹였다’ ‘가을 햇볕에 고추가 잘 말랐다’ ‘산악지대에서는 여름철에도 대낮에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이 옅어지면 냉기가 돈다’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5. ‘다니냐’와 ‘다니느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다들 보셨는지요?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형사 박두만이 살인 용의자 박현규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속으로는 현규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 놓아주게 된 박두만이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지는데요.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아리송합니다.

박현규의 몰골이 불쌍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워서 빈정대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 보려는 것은 박 형사의 이 말 ‘밥은 먹고 다니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와 ‘밥은 먹고 다니느냐’, 어느 것이 바를까요? 이것도 좀 헷갈리죠? ‘-냐’와 ‘-느냐’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냐’와 ‘-으냐’는 형용사와 ‘이다’에 사용합니다. 둘 중 ‘-으냐’는 받침 있는 말 다음에 오게 되지요.

예를 들면 “이것이 풍란이냐? 꽃은 예쁘냐?” “이 사과는 왜 이렇게 자냐? 맛은 좋으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느냐’는 동사와 ‘있다’ ‘없다’ ‘계시다’에 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이겼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 가게에서 생강을 파느냐?” “비행기 타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없느냐?” “아버지 계시느냐?”처럼 쓰는 것이죠.

따라서 ‘밥은 먹고 다니냐?’가 아니라 ‘밥은 먹고 다니느냐?’라 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흔히 ‘이겼냐? 먹냐? 파냐? 있냐? 없냐? 계시냐?’로 쓰는 이들이 많지만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 6. ‘쥼다’와 ‘꺄다’

얼마 전 고등학생 독자에게서 e-메일을 받았습니다.

요즘 ‘쥼다’를 ‘꺄다’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쓰기에 혹시나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더니 ‘꺄다’가 너무 많이 나와 한심하다는 생각에 글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전화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쥼다’의 받침을 ‘ㄱ’으로 쓰다 보니 ‘꺄다’가 이젠 틀린 글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으며, 의사소통만 되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 [8차시] 말과 여가



우리말을 걱정하는 그 학생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의 지적처럼 인터넷 언어다, 외계어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 우리말을 파괴하고, 물속에서 외래어(魚)가 토종어를 마구 잡아먹으며 활개 치듯이 외래어가 국어를 유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글과 국어는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의 최대 문화유산임을 생각할 때 우리말 훼손을 다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